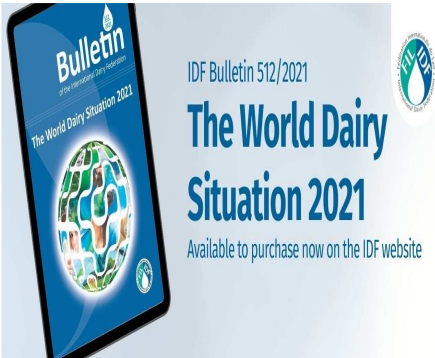




## [IDF 동향] IDF, 2021년 세계낙농산업동향 보고서 발간

- 2020년 세계 전역 50여개국 낙농산업 통계자료 등 수록



IDF는 지난 10월 13일 개최된 글로벌 데어리 컨퍼런스에서 2021년 세계 낙농산업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.

IDF 주력 출판물인 이 보고서는 전 세계 주요 기관과 IDF 전문가들간 긴밀한 협력의 산출물로서 세계 전역 50여개국의 원유 생산, 소비 및 교역관련 통계자료를 비롯해 공급 및 수요, 낙농산업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으며, 이번 컨퍼런스 개최국인 덴마크의 낙농 현황을 특별 부록으로 다루고 있다.

IDF 사무총장은 특히 이번 호에서는 최근 FAO와 OECD가 공동으로 발간한 2021-2030년 농업전망 보고서를 요약해 수록하게 되었다며, 세계 낙농산업관계자들이 급변하는 세계 낙농시장 상황을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. < 출처 : IDF 본부, 10월 13일자 >

## [영양건강] “어린이들의 저지방 우유 섭취, 일반 우유와 차이 없어”

- 칼로리 섭취량, 심혈관 건강 및 비만에 유의미한 차이 없어



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어린이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저지방 우유를 선호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가운데, 일반 우유와 저지방 우유가 건강학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.

최근 호주 에디스코완대학교 연구진이 일반 우유와 저지방 우유 섭취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4~6세 어린이 49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3개월간 일반 및 저지방 우유를 무작위로 섭취시킨 후 비만, 체성분, 혈압 및 혈액을 측정 및 평가했다.

그 결과 두 그룹 모두 섭취한 우유와 상관없이 비슷한 양의 칼로리를 섭취했으며, 심혈관 건강과 비만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임상영양학저널을 통해 발표했다.

연구진은 “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우유의 지방 함량이 건강학적 효과에 큰 차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식단지침 개정시 2세 이상의 어린이들이 일반 또는 저지방 우유를 섭취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어린이들의 개인 선호도에 따라 섭취되어야 한다”고 전했다. < 출처 : fox59.com, 10월 17일자 >

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,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